



즉시 배포용: 2025년 11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AI 동반자 기업에 서한을 보내 세이프가드 요구 사항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고지

전국 최초의 법률, 인공지능 동반 기업에 안전 기능 구현 및 장시간 사용 시 중단 알림 제공 의무화

AI 동반자 기업, 이제 사용자가 자해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센터에 회부해야 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뉴욕 주민들을 디지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AI를 추구하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에 기반

[기업들에게 발송되는 공개 서안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AI 동반자 기업을 위한 국가 최고의 보호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 집행 예산의 일부로 채택된 이 법률은 AI 동반자 운영자가 안전 기능을 구현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장기간 사용하는 사용자를 방해하는 알림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제 AI 동반자 기업들은 사용자가 자살 충동이나 자해를 표현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고 이를 위기 센터로 안내하는 등 안전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따라 동반자 기업들은 3시간 동안 계속 사용할 때마다 사람과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AI 동반자법은 뉴욕 주민들을 디지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AI를 확대하겠다는 주지사의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업에 보낸 공개 서한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를 형성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주 전역의 젊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뉴욕주가 책임감 있는 AI의 미래를 향한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 글로벌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기업 및 주 정부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붐의 부추김을 받아 스스로를 해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AI 동반자 기업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자사 제품이 이러한 AI 동반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작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AI 동반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뉴욕이 계속해서 AI 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하며, 안전하지 않은 AI 제품으로 뉴욕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에 책임을 묻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AI 동반자'는 AI 친구나 연인으로 가장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와의 인간 관계를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기억하고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성격을 조정하며 사용자의 참여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 동반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2026년 회계연도 집행 예산의 일환으로 뉴욕 주민들을 디지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일반 비즈니스법 제47조로 제정하여 기업이 사용자들 위한 안전 조치를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했습니다.

새 법률에 따른 책임

2025년 11월 5일부터 AI 동반자 기업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위기 개입을 위한 안전 프로토콜 구현: AI 동반자 기업들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의 징후를 감지하고 사용자를 위기 서비스 제공업체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장시간 사용 중지: 세션 시작 시 눈에 잘 띄는 알림과 지속적인 동반자 사용 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등 사용자가 인공 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알립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뉴욕 법무장관이 집행하는 처벌이 부과되며, 징수되는 모든 벌금은 뉴욕주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Kristen Gonzalez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의회와 주지사와 협력하여 이 동반자법과 같은 AI 법안을 지지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챗봇과 같은 AI 도구가 채택되면서 반응형 규제 영향의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아동을 보호하고 의료, 법률 또는 재정 자문과 같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책임감 있는 AI 리더로 만들기 위해 중점을 기울여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공익을 AI의 최전선에 두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teve Oti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26 주 예산에는 AI 동반자 도구 사용자에게 대한 상당한 보호 및 알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표현한 자살 충동이나 자해 표현을 탐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과 사용자가 사람이 아닌 AI 도구와 소통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알림입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Hochul 주지사와 양원이 인공 지능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에 보조를 맞추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